

1. 하나님께서 단단히 빠지셨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아주 먼 옛날, 예레미야 선지자 시절의 이야기지요.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다(렘 15:1)”**고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히 돌아섰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남은 건, 쫓겨나는 것 뿐이었습니다.
2. 드러난 이유로는, 4절, 므낫세 때문이었습니다. **“유다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이 원인이라는 것이지요. 그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흠으시겠다”**고 결심하신 것입니다. 아마 그 결심, 바꾸기가 그리 쉽지 않을 것입니다.
3.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나 불행이 닥칠 때, 흔히 우리는 하늘이 노했다고 말합니다. 날씨만 안좋아도 그렇게 말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마다 기우제 같은 것을 지내곤 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어 보겠다는 생각이었지요.
4. 일단, 므낫세 때문이라고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그가 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는 유다의 왕이지요? 그러니까, 열왕기서를 펼쳐셔야 합니다. 열왕기하 21장,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했습니다.
5.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행한 일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아마 일일이 다 읽지 않아도, 악한 일이겠지요? 그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났으니까! 그래서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일단 솔로몬의 성전에 우상의 제단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거기에서 점치며 사술을 행했지요. 또 그 일을 위해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였습니다.
6.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다고 하나님의 결심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지요. 이제와서 우상의 제단을 부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성전에서 점치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쫓겨나는 일을 막을 수는 없지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내쫓아도 하나님의 분은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7. 이런 것을 ‘엎지러진 물’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지요. 그런데도 인간은 반사적으로 솟아날 구멍을 찾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다(히 10:27)**고 말하는 것입니다.
8. 다시 열왕기하 21장으로 돌아와서, 성경은 므낫세가 55년간 왕위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지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그런데 이 이름은, 선지자 이사야의 입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사 62:4)”**
9. 그래서 이 열왕기서가 말하려는 것이 무엇이나면, 그가 바로 “헵시바”의 아들이 “므낫세”라는 것이지요. “헵시바”, 곧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자식이 므낫세라는 말이지요. 또 그가 바로 히스기야의 아들이고, 유다의 왕이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10. 그러니까 성경이, 므낫세 이야기에 그의 아버지 이름과 그가 유다 왕이라는 사실과 또 특별히 몰라도 될 만한 그의 어머니 이름을 들먹인 것은, 그 므낫세의 악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복된 자의 아들이 악을 저질렀다! 그래서 용서할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11. 한 걸음만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자면, 그냥 어느 이름 모를 누군가가 우상숭배를 하고, 점을 치고 박수무당을 불렀다면, 호들갑을 떨 일도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악한 일을 한 자가 바로 여호와와 기뻐하심을 입은 자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실망이지요. 신뢰마저 저버린 것이지요.
12. 우상숭배는 죄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박수무당을 데려다가 점을 치게 하는 것도 죄이지요. 그러나, 그래도 회개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라는 게, 이때까지 교회의 주장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 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되리라.” 했다는 것이지요.
13. 그러나 헵시바의 아들 므낫세가 그랬다는 건, 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다? 힘들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호하신 이유는, 주홍색의 죄, 혹은 진홍색의 죄 때문이라기 보다는, 그런 죄를 지은 당사자가 누구냐에 달린 것입니다.
14.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방인들이 이방에 살면서 알라를 믿든, 무신론자가 된다고 해서 구원받을 기회조차 박탈되는게 아니겠습니까? 임진왜란 때에 왜군이랑 싸우느라 예수도 못믿고 죽었는데, 그에게 돌이킬 수 없는 형벌이 주어지겠습니까? 형벌의 중함은, 그가 헵시바의 아들이라는데 있는 것입니다.
15. 므낫세, 이 이름은 요셉의 아들 이름입니다. 이집트에 팔려갔다가 총리가 되고, 또 아내 아스낫을 얻어서 첫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트라우마를 잊게 하셨다는 의미이지요. 총리가 되게 한 것도, 또 그간의 고난의 세월을 잊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담긴 이름이었습니다.
16. 그런데 그와 같은 이름을 가진 므낫세가, 또 그의 어머니의 이름에서 보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자로서의 아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유대 나라의 왕이 되어서, 우상숭배를 한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된 성도가, 교회에서 점을 쳤다는 것이지요.
17. 그러니까, 그런 그리스도인의 배신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서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있는 것처럼, 나를 미워하는 자의 갚되 아버로부터 3,4대까지 이르게 하시지요. 그들을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시고, 70년이 다 지날 때까지 징벌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행실 중에 최악된 것들을 찾아내어서 우상을 버린다거나 아니면 제사를 잘 지낸다고, 이 기간이 짧아질 일은 없는 것입니다.
18.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상숭배는 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죄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제단에 성상들을 올려놓고, 또는 마리아상을 마련해 놓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기 집 한 칸에 신사를 마련해 놓고,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고 절을 하지요. 어떤 이들은 아들 대학에 붙게 해 달라고 굶을 하고, 결혼을 앞두고

당사자들이 서로 사주팔자를 묻습니다.

19. 세상이 그러는 거에 대해서는 그리 심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심히 죄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그럴 때이지요. 내 집 아이가 그런다는 것입니다. 혹 저들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남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 우상숭배란, 배나 더 경을 칠 일인 것이지요.
20. 솔로몬의 성전에 박수무당을 데려다가 점친 자가 누구입니까? 헵시바의 아들 므낫세입니다. 교회로 치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들이 교회건물을 마련하고, 목사를 청빙해 놓고, 그 앞에서 기복을 하거나,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점괘를 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21. 이것을 성령훼방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성령을 훼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막 3:29)” 했습니다.
22. 히브리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6장 4절 이하에 기록하기를,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헵시바의 아들 므낫세지요. 하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입니다.
23. 그런데 그러한 자들이 타락했다고 했습니다. 거룩한 자들이 우상숭배를 다시 하고, 다시 박수를 끌어들이고, 다시 점치는데로 돌아갔다는 것이지요. 이런 자들은, 6절,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욱을 보임이라**”고 했습니다.
24. 그러니까, 성도가 점치는 행위를 하거나, 혹은 기복을 일삼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는 것입니까?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박는 짓이라는 말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하심을 받고, 예수의 공로로 사하심을 받고, 성령으로 새롭게 된 자들인데, 그래서 거룩한 자, 성도인데, 기복을 한다? 이건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25. 7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8절,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와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했습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헵시바의 아들 므낫세의 열매라면? 우상숭배나 점치는 것, 박수를 불러 복을 비는 행위가 성도의 열매라면, 그 마지막은 어떠하겠습니까?
26. 히브리서 10장을 읽어 드립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 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욱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27. 하나님은 한 번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부르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렇다는 것을 믿고, 그 아버지를 배신하는 것에 대해서, 므낫세의 일로 경고하십니다. 우상숭배란 하나님의 아들을 밟는 행위라고! 성찬에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일이고, 자기 부모를 욕되게 하는 일, 성령훼방죄입니다. 그래서 점치는 일을, 무슨 재미처럼 할 수 없는 것입니다.